



58년의 봄

럼 예 성

1

봄이 조용히 미소하고있는 거리는 아직 미명속에 잠겨있었다.

승용차의 실내등이 차안에 가득 서려든 어둠을 밀어내며 유난히 빛난다.

수령님께서는 보시던 문건을 무릎우에 놓으시며의자등받이에 비스듬히 어깨를 기대시였다.

현지지도의 먼먼 천리길을 달려오시는 동안 쌓이신 피로가 순간에 밀려와 몽롱한 안개마냥 온몸을 따뜻이 감싸안는다.

잠시라도 쉬고싶으시였다. 그러나 피로한 몸의 호소와는 달리 정신은 점점 맑아지였다.

해득되지 않은 고대의 문자마냥 엉키고 흩어지려던 글자들이 선명한 글줄을 이루며 또렷이 떠올랐다. 그것은 그이께서 마지막으로 보신 쏘련기자의 서면질문내용이였다.

《존경하는 김일성동지, 형제적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굳센 련대성과 믿음을 보내고있는 쏘련의 한 평범한 벗은 조선인민의 존경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천리마조선을 방문하는 길에 느낀 몇가지 증폭되는 의문점들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듣고저 감히 서면질문을 드립니다. …》

실내등이 소리없이 꺼졌다. 아마도 그이께서 쪽잠에 드신줄로 아는 모양이다. 고르로운 차발동소리와 함께 글자들은 음성으로 변환되어 귀전에서 웅웅 울리기 시작했다.

《첫째, 조선에서 진행되는 1차 5개년계획이 쏘련의 〈고엘로계획〉과 같은 의미라고 보아도 되겠습니까?

둘째, 주변대국들의 원조를 타산한 기초우에서 세우신 계획입니까?

셋째, 약소한 식민지농업국가였고 전쟁까지 겪은 조선이 이 방대한 과업을 수행할 힘이 있다고 보시

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이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였다.

기자가 녀두에 둔 《고엘로계획》은 레닌이 당의 제2강령이라고까지 한 쏘련의 첫 국가전망계획이다. 《쏘베트정권 더하기 전기화가 곧 공산주의》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은 레닌의 발기에 의하여 로씨야전기화학가위원회(고엘로)가 작성하고 1920년에 제8차 전로쏘베트대회에서 채택한 이 방대한 과업은 인민경제를 복구개건하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하여 15년동안 전국을 전기화할것을 예견한 장기적인 계획이였다.

(그의 이 첫번째 질문속에는 두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있다.) 하고 그이께서는 생각하시였다.

쏘련이라는 강대국, 세계에서 령토가 제일 크고 인구도 많고 자원도 무한대한 나라에서도 공민전쟁 후 인민경제복구계획을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잡고 세웠는데 조선이라는 이 자그마한 나라가 5년동안에 하겠다는것이 정말인가?

그저 전쟁전수준에로의 복구정도가 아니라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이행하겠다는것이 가능한가?

그는 그 크고 강대한 자기 조국 쏘련도 이 이행에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들였다는것을 말하고싶었을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공업국가로 넘어갈 또 다른 계획을 이미 세우고있다는것을 알면 그는 더 놀라지 않을까?…

차가 평양시입구에 들어서자 날이 밝기 시작했다.

《조금 천천히 갑시다.》

그이께서는 차창을 내리시고 이른새벽부터 들끓는 수도의 공기를 후련하게 호흡하시였다.

전주대우에 높이 매달린 고성기들에서는 새로운 노래 《우리는 천리마타고 달린다》가 짹짹 울려나오고 거리의 곳곳에는 《동무는 천리마를 탔는

가?》라는 선전화가 나붙어있었다.

어디서나 사람들이 봄비고 골재를 실은 차들이 골박이를 하고 호각소리가 뻑뻑거리고 기중기가 움직인다.

온 평양시가 아니, 온 나라가 하나의 거창한 무대우에서 건설의 대교향악을 연주하고있었다.

조국이 1차 5개년계획수행의 두번째 해에 들어선 지도 이제는 녀달이 지나갔다.

인민들의 식의주문제해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고 사회주의공업화의 기초를 닦기 위한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자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자재도 자금도 기계도 기술자도 적다. 아직은 모든 것이 너무나 부족하고 힘든 시기이다. 기적은 하느님만이 이룩하는것이라고 떠들던 세계는 5개년계획의 첫해과업을 빛나게 수행한 조선인민의 힘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더니 지금은 또 올해과업이 지난해에 비해서 너무 방대하고 아름답데 압도되어 다시금 죽가마처럼 끓고있었다.

올해는 우리에게 더 힘든 해로 될것이다. 무슨 일이나 시작보다는 결과로 가는 과정이 더 힘든 법이다.

수령님께서는 예리함을 깊이 묻은 기자의 두번째 질문을 떠올리시였다.

내정이 복잡한 쏘련, 흐루쇼브의 집권후에 크레믈린에서 흘러나오는 이상한 발언들에서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라는 궤도를 탈선하기 시작한 쏘련의 실체를 느끼고계시였다. 그들이 구원의 손길처럼 내흔드는 《썬브》의 화려한 간판밑에 예측의 울가미가 있다는것은 결코 예감만이 아니였다. 중국은 또 다른 시련을 겪고있었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전쟁을 피로써 도와준 형제의 나라 중국은 《대륙수복》과 《두개 중국》 조작책동에 피눈이 되어버린 장개석 도당과의 소리없는 전쟁을 계속하고있었으며 심한 기형성을 띠고있던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눈코뜰새없이 뛰고있었다.

그러니 결론은 명백하지 않은가.

(문제는 바로 우리 내부에, 바로 우리결에... 우리가 가는 길에 대해 의심하고 남의 원조와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이다.) 하고 그이께서는 피로롭게 상기하시였다. 그들은 일이 잘되어갈 때면 입을 다물고있다가도 힘들어지는 기미가 나타나면 대국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한다. 우리에게는 이 계획을 실현할만 한 힘이 없다는것이다. 어제도 그들은 더 늦지 않게 계획을 수정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쏘련과 중국에 원조를 청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현실을 현실대로 보는것이 진정한 애국자의 눈이라고 했다. 그들의 《애국적인견》대로 한다고 하자.

그렇게 5개년계획을 수행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으로 헤쳐가야 할 그 멀고도 먼길을 계속 남의 부축을 받으며 갈수야 없지 않은가? 험하게 가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눈이 한송이두송이 내릴 때는 그저 아름답고 가벼운 물질

이지만 쌓이고쌓이면 그 무게에 거목도 꺼꾸러지는 일이 있듯이 남의 신세를 한번두번 지기 시작하면 어느때가는 그 무게에 짓눌려 일어서지 못한다, 우리 조선이 영영 일어서지 못한다...

세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은 그 기자 일개인에게가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앞에 내가 해야 할 대답일수도 있다.

끝없이 이어지는 사색속에 집무실문을 여시니 책상우에 쌓인 문건더미들이 제일먼저 안겨오시였다.

집무실을 비운지 하루도 못되는 사이에 또 그렇듯 많은 일감들이 쌓인것이다.

외투를 벗으시는 걸음으로 집무탁에다가가시여 맨우의 문건을 펼쳐드시던 그이의 존안에 놀라운 빛이 서서히 비껴갔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학생들이 고고학강좌 류옥선생의 강의를 받는것을 못마땅해한다는 반영자료의 까만 글줄들이 처음 보는 글자처럼 낯설게 안겨왔다.

(고고학과정안에 따르는 실습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데 대해 교원이 추궁한것은 응당한 일인데 선생의 수업을 거부하다못해 학부까지 옮겨달라고 제기했다? 무엇때문인가?)

수령님께서는 손에 든 만년필뒤등으로 책상을 나직이 툑툑 두드리시였다.

...여기엔 무슨 문제가 있다. 교원에 대한 태도문제이기 전에 과목에 대한 어떤 관점문제가 아닐가? 이 놀라운 사건의 주동인물인 제대군인학생 정인혁... 그는 어떤 학생인가?

학생의 반발에 한마디의 대답도 못하고 피로와 울었다는 처녀교원...

언뜻 다시 보니 처녀선생의 이름이 낯익다는 생각이 드셨다.

(류옥이라면 류형석선생의 딸이 아닐가?)

문득 수령님께서는 이 하얀 종이장뒤에 반영자료를 올려보낸 사람들도 다 알지 못하는 많은 사연들이 있으리라는 예감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그 문건을 따로 내놓으시고 두번째 문건을 끌어당기시였다.

류달리 두툼한 그 문건의 첫장을 펼치시던 수령님께서는 갑자기 새로운 충격에 손이 굳어지시였다.

과학원 력사연구소 부소장 정진하교수가 대성산 유원지건설에 관한 수령님의 방침을 전면거부하였기때문에 엄격한 비판검토를 시킨 후 지방으로 내려보내려 한다는 보고자료였다.

《?...》

책상우에 스프르 떨어지는 하얀 종이장을 뚫어지게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앞으로 한 늙은이의 모습이 떠오르시였다.

참대라도 삼킨듯 곳곳이 세운 몸체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지성과 함께 고집스러움과 칼날같은 강단이 느껴지던...

정진하! 우리 나라에 몇명 안되는 력사학자, 한

번밖에 만나본적이 없지만 그의 기억속에 또렷이 새겨져있는 사람이였다.

수령님께서 그를 만나신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의 3계단작전이 끝나가던 1951년 6월의 어느날이였다.

적들에게 죽을번 한 정진하라고 하는 남조선력사학자를 구원하여 데리고왔다는 최현의 보고를 받으시고 밖으로 나가시니 마당에 키가 크고 병약해보이는 반백의 사나이가 서있었다.

개명한 문물과는 담을 쌓은듯 하얀 조선바지저고리를 입은 사람이였는데 불길속을 헤쳐왔는지 옷은 온통 불에 타서 구멍이 송송하고 발에는 다 해진 미투리를 신고있었다. 그이께서 놀라신것은 너무도 절망적인 그의 얼굴표정과 온통 찢기고 터진 그의 험한 손때문이였다.

《무슨 일입니까? 몸을 상한게 아닙니까?》

그이의 다급한 물음속에 정진하는 불현듯 《으흐흐..》 울음을 터뜨렸다.

허물어져내리는 그의 몸을 받쳐드셨는데 험상한 손이 수령님의 옷자락을 짝 부여잡고 와들와들 떨리였다.

《장군님, 그 원썩놈들이... 그 악귀같은 놈들이... 고구려벽화무덤들에 수류탄을 던져넣어 깡그리... 깡그리...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깡그리 다... 으흐흐...》

순간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이라는 엄혹한 환경과는 너무도 어울리지 않는 그의 말에 놀라기보다 커다란 감동을 느끼시였다.

무엇이든 건져보려고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폐허를 파헤쳤을 그, 자기 집재산이 타고 자기 몸이 갈기갈기 찢긴다 해도 이토록 절통하게 울것인가. 이 나라의 유구하고 찬란한 력사가 원썩들에 의해 재가루로 되는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몸부림치는 그의 모습에서 수령님께서서는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을 보시였다.

그의 두눈에서 흐르던 진하고 뜨거운 그 눈물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되시였다.

그렇게 만나셨던 정진하교수, 그때부터 남모르게 걸음걸음 보살펴주시며 그렇게도 순결한 인간의 애국에 타는 심장을 지켜주신 그이이시였다. 그런데 그가... 무엇때문이였을까? 어떤 오해가 생겼는가?

그이께서는 착잡한 마음으로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선생을 찾아주시오, 지금당장!》

수령님께서서는 쌓인 문건들에 더 손을 대지 않으시고 천천히 일어나 참문가로 다가가시였다.

정원에는 여러가지 수종의 나무들이 저저마다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 봄을 맞은 대지에 생명의 미소를 보내고있었다. 하지만 그 나무들이 끝나는 곳에 서있는 한그루의 나무만은 봄바람에 메마른 아지를 쓸쓸하게 스치며 묵묵히 서있었다. 파편에 뿌리를 상했는지 몇년째 꽃을 피우지 못한다고 사람

들의 관심밖으로 밀려나 버림을 받던 살구나무였다. 정원에 옮겨심고 겨울동안 애기를 돌보듯 많은 정성을 기울였건만 봄이 온 이 환희로운 시각에도 끝내 꽃을 피우지 못한 가엾은 그 나무를 보시는 그의 가슴은 웬일인지 저릿해오셨다. 상처입은 나무의 보이지 않는 몸부림이 온몸으로 마쳐와서인가. ...

조용한 문기척소리와 함께 과학원 력사연구소 소장 류형석이 들어섰다.

전쟁의 준엄한 환경속에서도 배심있게 조선봉건왕조시기 군대의 구성과 성격 등을 분석체계화한 《조선봉건왕조병제사》를 저술한 명망높은 력사학자의 얼굴은 전등빛때문인지 몹시도 창백해보였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는지 창가림을 제낀 집무실이 온통 붉게 물들고있었다.

《정진하선생의 일은 모두 그 조공가유적때문입니다.》

참문가에 서계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류형석을 돌아보시였다.

《조공가유적이라니? 중국 료녕성 심양시에서 발견된 청동기시대 유적 말입니까?》

《예.》 그랬다. 모든 일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것이다.

과학원 력사연구소 정진하교수가 중국에서 조공가유적이 발굴되는데 대하여 그토록 흥분한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였다.

그는 그 소식을 들은 즉시로 문화성 부상 윤원을 찾아갔다.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전쟁승리와 함께 조국으로 돌아온 윤부상은 랑정하고 딱딱한 실무가형의 일군이였다.

《...이자 뭐라고요? 정선생, 그건 무슨 말인가요?》

그는 무슨 말인지 리해할수 없는듯 아리송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중국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이 발굴되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빨리 청동기시대 유적발굴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의 첫 국가의 발생과 인류력사상 첫 금속기시대인 청동기의 사용시대가 동일하다면 그것은 곧...》

순간 윤부상은 들고있던 책을 탁 접었다.

《선생, 지금 때가 어느때요? 쏘련에서는 인류의 첫 인공지구위성을 발사했고 또 얼마전에는 미지의 세계인 남극대륙에 대한 연구와 기상관측을 하기 위한 국제협력기구 SCAR(남극연구과학위원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러구 국내적판도에서 볼 때요 선생이 청동기시대 유적을 찾겠다고 고문서나 뒤지고 옛무덤이나 탐색하고있을 때 조선인민은 천리마를 타고 날고있소.》

윤부상은 쌀쌀한 눈길로 정진하의 창백해지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경제학적측면을 놓구봐도 그렇지. 그런 케케묵은 고문서들이나 유물파위를 뒤져내느라 쏟아부을

자금이 있을 정도로 여유있다면 우리가 왜 5개년 계획이 힘들다구 하구 큰 나라에 도움을 청할 생각까지 하겠소?»

《?...》

《그리구 중국에 있으면 조선에도 있다구 누가 그러던가요? 중국은 대국이니 그런게 있다치구 손바닥만큼 작은 이 조선땅에서 그런 유물들이 나올 수 있다구 누가 장담하는가? 선생이요?》

정진하는 불편하게 앉아있던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왜서인지 오한이 났다. 목에 무엇인가 걸린것처럼 목소리가 힘들게 갈려나왔다.

《조선의 력사학자로서 내가... 담보합니다.》

《이보시오, 선생! 그만큼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광활하구 태고연한 중화의 대지도 아니구 전쟁으로 재더미밖에 안 남은 이 땅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을 찾는다는게 너무 어리석지 않소?》

《...》

비양기어린 팽담한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비수처럼 쿡 찔렀다. 참을수 없이 몸이 떨려났다.

그는 모자를 와락 움켜잡고 창백한 얼굴을 쳐들었다.

날카롭게 빛을 뿌리는 그의 눈빛앞에 윤부상의 손이 허공에서 굳어졌다.

《왜?...》

《차라리 당신이... 조선사람이 아니였다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뭐요?》

《가련한 인간!》

정진하의 목소리는 나직했으나 다치면 벨것 같이 예리했다.

랑 달기는 문짚으로 윤부상의 씹어뺨는듯 한 목소리가 날아왔다.

《후회할줄 아시오! 복고주의온상!》

밖에는 봄기운이 한창 무르녹고있었으나 복도는 아직 추웠다. 게다가 그 방에서 안고나온 랭기까지 몸에 스며든듯 마구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는 비칠거리며 걸어갔다.

복고주의라구? 이 나라의 력사를 되찾고 세월의 락엽과 이끼에 묻혀버린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의 산물을 되찾는것이 복고주의란 말인가? 그렇다면 력사학자인 나는 왜 존재하는가? 력사학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것의 존재가치는 무엇인가?...

피로움에 모대기며 집으로 가던 그는 대성산입구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이는것을 보고 정신을 차렸다.

무엇때문인지 섬찍한 예감이 들었다.

대성산은 고구려시기 쌓은 대성산성과 안학궁터 그리고 옛무덤때들과 고구려절간이 있는 귀중한 력사유적장소였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합니까?》

눈에 보이는 첫 사람을 붙잡고 물었다.

《대성산유원지건설착공식이 이제 곧 있게 됩니다.》

《뭘라구요? 여기에 유원지를 건설한다구요? 안 됩니다!》

그는 허둥지둥 간부들이 모여서있는 곳으로 가서 당장 샅을 박으려는 사람을 막아나섰다.

《여긴 력사유적들이 있는 곳입니다. 누구도 여기를 다치지 못합니다.》

《전 여기 건설대장입니다. 누구십니까?》

영민하게 생긴 젊은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난 과학원 력사연구소 부소장 정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선생님, 여기에 유원지를 건설하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뜻입니다.》

《예? 수령님께서요?!》

그의 얼굴이 눈에 띄게 창백해졌다가 차츰 거멸게 질리기 시작했다.

유원지! 사람들이 와서 즐기고 휴식하는 장소로 대성산만큼 경치좋은 곳은 없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득한 세월도 이끼를 덮을수 없었고 사멸시킬수 없었던 이 나라의 귀중한 력사가 있다.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적유물들이 있다. 이런 곳에 유원지를 건설하면...

그의 눈앞에는 불도젤의 무한궤도와 날카로운 꼭쟁이날에 산산이 부서지는 8각5층탑의 광법사며 안학궁터며 벽화들이 환각처럼 떠올랐다.

소스라치게 몸을 떨 그는 굳어진 입술을 가까스로 움직였다.

《여긴 력사유적장소입니다. 한번 잘못 다치면 영원히 되살릴수 없는것이 력사입니다! 수령님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윤부상은 그를 당장 지방으로 추방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령님께는 자기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류형석은 가까스로 말을 끝맺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건을 움켜잡고 비틀고계시었다.

끝없는 예지로 빛나고 사랑으로 따스하던 안광에서 서늘한 기운이 뿔어나오고있었다.

(윤원... 5개년계획의 불가능성에 대해 앞장서서 주장하던 사람이었지...)

눈앞에 준수한 옷차림의 장대한 사나이가 떠오르시었다. 아무것도 부족해보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꼭 있어야 할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민족적자존심에 대하여 생각해본적이 있을까? 민족적자존심,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국가와 민족의 생명이라는것을 종종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작은 인간들때문에 나라가 작아진다. 정말로 작은 나라가 되고 남에게 머리를 숙이게 된다. 이것은 고고학이라는 학문에 대한 물리해이기 전에 민족의 력사에 대한 물리해이고 우리 민족에 대한 허무주의적인 견해와 관점이다. 주변의 큰 나라들에 원조를 요청하자고 제기하는 일부 일

군들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바로 이러한 생각이 이 사건의 밑바탕에 깔린 정말로 큰 문제가 아닐까?

그이께서는 비틀던 문건을 다시 반듯이 펴시었다. 거기에서 정진하라는 이름을 발견하시는 순간 커다란 아픔이 가슴에 마쳐오시었다.

어쩌면 인간이 인간에 대하여 이렇게도 무자비하고 차가울수가 있던 말인가?

제 나라, 제 인민을 위한 창조와 건설에는 손발이 시려하면서도 함부로 감투를 씌우고 박해하는데서는 그 누구보다도 초혁명적이고 초열성적인 이런 랭헬의 인간때문에 민족의 력사가 묻혀버리고 그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이 불행해진다, 인민이!

수령님께서서는 마음이 답답하시여 창문을 활 열어제끼시었다.

지금쯤 어디에선가 자신께 큰죄를 졌다고 타매를 받고있을 정진하, 한생을 바쳐 탐구하고 사랑했던 학문과 자기자신을 부정하며 몸부림치고있을 그의 모습이 떠오르시었다.

그렇다, 이것은 누구보다 정의롭고 순결한 인간-력사학자 정진하의 운명문제이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고고학의 운명, 이 나라 력사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문제이다, 중대문제!

그이께서는 주먹을 짝 틀어쥐신채 오래도록 창문가에 서계시었다.

2

류옥은 늦은밤 홀로 천천히 집으로 가고있었다. 어디서나 건설장이여서 불빛이 밝았지만 처녀는 갑자기 신음소리를 내며 비칠거렸다.

공사장으로 날라가던 골재를 흘렸는지 자갈같은 것을 밟고 발목이 시큰한것이다.

하지만 발의 아픔은 마음이 아픈데 비해 너무나 선선한 아픔일지도 모른다.

류옥의 눈앞에는 자기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한 장본인인 정인혁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엇때문인지는 알수 없으나 첫 수업때부터 류옥은 이상하게 자꾸만 벽쪽 세번째 책상의 학생에게 눈길이 갔다.

책상우에 놓여진 억센 힘이 느껴지는 손이라든가 툼툼하고 준수한 모습때문만이 결코 아니였다.

무엇인가 많은 사연을 안은 눈빛이 류옥이자신을 주시하고있었다.

놀라움과 호기심, 그외에도 알수 없는 이상야릇한 감정...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배우는 학생이 선생을 보는 눈빛치고는 너무 강렬하지 않는가?

언젠가 한번 불현듯 눈길을 마주친 때부터 류옥은 극력 그쪽을 보는것을 피하였지만 그의 눈빛은 한시도 류옥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있었다.

이름은 정인혁, 제대군인대학생. 너무나 평범한 경력이었다.

인생길의 그 어느 굽이에서도 마주쳐본적 없는

그 사람이 첫 실습보고서를 내지 않은 학급의 6명 중의 한 학생이라는것을 알았을 때 무엇때문에 배반당한듯 한 감정을 느꼈는지는 류옥이자신도 알지 못했다.

《정인혁동무!》

류옥은 지금도 그를 지적하던 자기의 랭랭한 목소리를 기억하고있었다.

《동무는 자신이 써나가는 한줄한줄의 보고서들이 우리 조국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사랑이라는걸 알고있어요? 동문 제대군인이지요? 우리 조국을 지키고 우리 력사를 지키기 위해 피를 뿌린 동무가 이렇게 책임성없이 과제를 수행하고있다니 정말 실망스러워요.》

류옥은 인혁이 머리를 쳐들어 자기를 바라보는것을 느꼈다.

이제 처음이니 용서해달라고 할것이고 그러면 자기는 이쯤 경중을 울리고는 어쩔수 없이 그를 자리에 앉혀야 할것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침묵이 흐르는것인가? 저 사람의 눈빛은 왜 저렇게 괴로와보이는가? 용서를 빌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인가? 내가 너무한것인가?

힘겹고도 나직한 목소리가 숨죽은듯 고요한 교실을 울린것은 다음순간이었다.

《선생님! 전... 이 과목을... 배우지 않겠습니다!》

나직하나 확정적인 그의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류옥은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고 포연에 그슬린 자취가 아직도 남아있는 검스레한 얼굴의 학생을 아연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긴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무엇때문인가요?》

《나라에서 우리 제대군인들을 대학에 보낸것은 더 많은 과학과 기술을 배워서 조국이 하루빨리 폐허를 가시고 부강하게 일떠서는데 이바지하길 바라셨을것입니다. 저도 대학에 입학하면서 희생된 우리 분대장동지와 전우들의 뒤통까지 합쳐 있는 힘껏 공부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조국에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학문을 탐구하느라 코피를 쏟고 밤잠을 뎌다면 마음이라도 행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무엇을 하는겁니까? 차라리 그 시간이면 건설장에 나가 땀을 뿌리며 흙 한삽이라도 더 뜨고 땅 한치라도 더 파겠습니다! 선생님, 제 생각이 잘못된것입니까?》

불길마냥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을 마주한 처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질려버렸다.

교실안에 폭탄이 터진 뒤와 같은 멍멍한 정적이 깃들었다.

격분때문인지, 아픔때문인지, 당황때문인지 알수 없는 눈물이 소리없이 고여오르는것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류옥은 머리를 쳐들었다.

《인혁동무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무들이 있으면 일어나보세요.》

조금씩 주춤거리고 망설이던 학생들이 하나, 둘

심각하게 일어섰다.

학급에 편입된 6명의 제대군인중 마지막학생까지 모두 일어서는 순간 류옥은 교수안을 덮었다....

《전 더이상... 강의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 고고학이 너무나 초라해보여서... 강좌장선생님, 그 학생들의 물음에 무엇이라고 대답해주어야 합니까?》

눈물에 젖은 류옥의 창백한 모습앞에 강좌장의 얼굴도 킁킁하게 죽어버렸다.

고고학강좌는 침울한 분위기에 싸여 활기를 잃었다.

정말로 고고학은 이 드바쁜 격동의 시대, 창조의 시대, 투쟁의 시대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고요하고 침침하고 안온한 학문이었던가?...

류옥은 건설공학을 배울수 있는 학부에 보내달라고 대학교무부에 정식 제기를 했다는 정인혁의 행동이 분했다.

(동무는 무슨 권리로 우리 학문을 부정하는가요? 동무의 눈엔 고고학이 정말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치장물처럼 보이는가요?)

갑자기 류옥의 걸음이 흠칫 멎어섰다. 시커먼 옷차림의 청년이 류옥의 앞을 막아섰던것이다.

악 소리를 치려는 순간 지나가는 전조등빛에 정인혁의 모습이 드러났다.

《주의하십시오.》

인혁은 차들이 수시로 다니는 도로쪽을 막아서며 나직이 말했다.

류옥은 자기와 자기의 학문을 거부하고도 너무도 당당하고 태연하게 서있는 그앞에서 무력해지는 자신을 발견했다. 속이 후두두 떨렸다. 그것은 분노와 격분을 초월한 어떤 이상한 감정이었다.

《용서를 빌러 왔는가요? 어떤 선택이든 그건 동무의 자유예요.》

류옥의 침착한 목소리에 인혁은 머리를 흔들었다.

《아닙니다. 난 류철동지의 유물을 전하러고 왔습니다.》

《뭐라구요?!... 저의 오빠의?...》

류옥의 긴 속눈썹이 놀라움으로 파르르 떨렸다.

인혁의 조용하면서도 불같은 목소리가 류옥의 귀전을 드세차게 울렸다.

《선생님, 저도 이 학문의 중요성을 리해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을 것처럼 사랑했던 류철동지가 돌아왔다고 해도 저와 같은 선택을 했을겁니다. 분대장동지와 사랑하는 전우들이 피로써 지켜낸 조국이 이렇게 재더미로 되었는데 선생님, 피끓는 우리 제대군인들이 과연 옛날유물이냐 연구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단 말입니까?... 선생님! 이 땅에 묻혀있는 유적과 유물들이 어데 가겠습니까? 앞으로 조국이 부강하게 되면 그때 고고학도 꼭 중요시될 겁니다.》

군대순수전에 쫓겨싼 자그마하고 묵직한 물건이 굳어져버린 류옥의 손에 꼭 쥐여졌다. 가벼운 전물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

인혁의 멀어져가는 발자국소리가 귀전을 울렸다. 길가에 홀로 남은 처녀는 격동하는 시대의 발걸음소리가 자기를 두고 멀리로 사라져버린듯 한 외로운 느낌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

멀리에서 불빛이 등대마냥 반짝이고있었다.

내가 끝내 고고학을 배우기를 거부했다는것을 알면 아버지 뭐라고 하실가?

아버지의 실망어린 눈빛을 마주할 일이 너무 힘들거워 인혁의 걸음은 차츰 떠졌다. 출입문을 여는 순간 웬일인지 썰렁한 공기가 느껴져 마음이 불안해졌다.

불은 켜있는데 아버지는 없었다.

책상우에 종이 한장이 놓여있었다.

《인혁아, 너에게 항상 미안했다. 여태껏 내 민족의 정신적기둥이 되어줄 참력사를 찾아 헤매었던만 자기 인생 하나도 바로세우지 못한 이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를 위해 마지막으로 불을 켜놓고 간다.》

가슴속에서 무엇인가 툭렁 떨어졌다. 더 설명없이도 언젠가처럼 아버지가 또 자기의 곁을 떠나갔다는 무서운 예감이 마음을 아프게 허빈것이다.

어데로 갔을까? 오늘의 일을 모두 알고 영영 떠나버린것은 아닌가?...

《아버지!》

출입문을 왈칫 여닫으며 정신없이 밖으로 뛰어나갔으나 칠혹같은 어둠만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어둠질은 거리를 오래도록 헤매이는 그의 눈앞에 문득 지금처럼 외로웠던 어린시절이 떠올랐다.

집떠나서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가 항상 그리웠던 시절이었다.

《엄마, 아버지 어디 갔나?》

《먼-곳에 갔단다.》

《언제 오나?》

《글쎄...》 하고 어머니는 대답없이 먼 하늘만 애절하게 쳐다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곤 하였다.

인혁이 열살나던 어느해 여름,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는 떠나는 아버지를 막아나섰다.

《경성제국대학에서 당신을 력사학교수로 초빙했다는데 왜 한사코 고생을 사서 하세요?》

《난 나라가 없는 력사학자요. 누구의 력사를 가르치라는거요?》

《당신은...》

어머니는 소리없이 울었다.

문득 어린 인혁이 막 달려가 대문앞에서 아버지를 막아나섰다.

《가지 말라요! 아빠가 가면 엄마는 매일매일 울어요!》

아들의 처음으로 되는 당돌한 항의에 아버지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구 나두… 나두… 아버지가 자꾸 보고파…》

울먹울먹하던 인혁이가 왕 소리내어 울었다.

《인혁아!》

아버지의 커다란 손이 떨리더니 아들의 허리를 감아 품에 꼭 안았다.

《용서해라. … 그래도 아버지… 가야 한단다. …》

《?…》

아버지의 따뜻한 품에 안겨 뒤울안에 간 아들은 어제 아버지와 함께 심은 참대의 푸른 잎을 보았다.

《인혁아, 참대처럼 굳세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가지 못한다. 알겠니? 다시는 울지 않겠다는 걸 사나이로서 맹세해라.》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말투에 겁을 먹은 아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까딱거렸다.

울지 말라고 강요하는 아버지의 마음속에 얼마나 더 아픈 피눈물이 흘러내리고있는가를 알기에는 너무도 어린 소년이었다.

그렇게 떠난 아버지는 어머니가 병으로 림종을 앓았을 때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12살난 아들이 방랑의 길을 헤매일 때에도 돌아오지 않았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거치른 세상천지에 홀로 남은 소년은 어느날 문득 자신이 고아라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깊도록 하염없는 눈물로 온 옷설을 다 적신 후에 맹세했다.

《다시는 울지 않을테다.》

소년은 이제는 남의 집이 되어버린 옛집 뒤뜰안의 참대에 마지막으로 물을 주고 홀로 먼길을 떠났다.

그 길이 15년이라는 긴 리별로 아버지와 자기를 갈라놓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인혁이 고고학강좌 류옥선생의 강의를 거부한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자신을 거부한것인 동시에 아버지의 한생에 대한 거부이기도 했다.

《고고학을 배워라.》

이것은 12살 어린 나이에 방랑의 수천리를 헤매다가 나라의 해방과 더불어 행복한 새 사회에서 운명을 바꾸었고 그 행복을 지켜 포화속에 서슴없이 몸을 내던졌던, 그래서 누구보다 뚝뚝하고 용감한 제대군인, 다음날에는 대학생이 될 아들에게 15년만에 만난 아버지가 한 말이였다.

하지만 인혁은 고집스레 입을 다물었다.

고고학때문에 가정을 버리다싶이 한 아버지, 고고학때문에 어머니는 외로움에 울면서 짧은 인생을 살았고 인혁은 아버지 있는 《고아》가 되었다.

《용서하십시오. … 지금 조국이 절실히 요구하는 것은 고고학박사가 아니라 과학기술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어요.》

나직하나 폭탄같은 아들의 선언에 아버지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 웃음앞에서 인혁의 가슴은 왜서인지 칼로 에

이는데 아파나 머리를 돌렸다. 하지만 운명은 그를 끝내 력사학부로 이끌어갔고 고고학이라는 피할수 없는 학문과 맞닥뜨리게 하였다.

피로움에 모대기던 그가 고구려시기의 세공기술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쓰기 위해 중앙력사박물관에 나갔다가 함께 제대된 친구를 만나게 된것은 소용돌이치는 용암에게 분화구를 열어준것과 같은 일이었다.

몇달만에 만나는 친구는 세계건설력사상 처음으로 14분에 한채씩 주택을 조립하는 기적같은 현실을 펼치고있는 조립식건설의 방대함과 거창함에 대하여, 자기가 평양시살림집건설에서 런일 혁신을 일으키는 모범작업반의 우수한 건설자라는데 대하여 공지에 넘쳐 말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소식도 아는것 전달해주었다.

누구는 황철에서 1호용광로와 해탄로에 대한 복구를 끝내는데 크게 기여했다느니, 누구는 우리 식의 프락포르를 만드는데 한몫 하고있다느니, 누구는 또 평양에 새로 형성되는 거리를 위한 측량을 하고있다느니 하며 이야기하던 친구는 인혁의 공부에 대해 물었다.

인혁은 아무런 대답도 할수 없었다.

모두가 천리마를 타고 기적과 위훈을 떨치는데 제대군인인 자기는 어느 고망년적의 옛 유물이나 주무르고 거기에 대한 연구보고서까지 써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건축에 대해 힘껏 배우라구. 듣자니 앞으로 그 분야에서 더 많은 기술자들이 요구된다고 하더군.》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인혁은 고민에 빠져버렸다.

정인혁! 너는 지금 총포탄이 울부짖는 전투장과 멀리 떨어진 예비대의 맨 마지막병사와도 같다. 조국이 시련을 겪으며 투쟁하고있을 때 제대군인대학생, 네가 서있어야 할 위치가 과연 어디냐? 고고학이냐, 건축학이냐? 대피호냐, 전투장이냐?…

이 모든 고민은 끝내 그가 실습보고서를 제출하는것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게 했고 종당에는 류옥선생의 강의를 거부하게 만든것이다.

제대되어 몇달동안 그토록 찾아헤매던 희생된 옛분대장 류철의 동생 류옥, 그를 다른 곳도 아닌 이 교정에서 스승과 제자로 만나게 되었을 때 저도 모르게 인연에 대해 야릇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던 그, 언젠가는 떠나간 전우가 임버릇처럼 외우던 그러한 일들이 있을것이라고, 그때 전우가 남긴 유물도 전달하리라고 마음속깊이 기대하기도 했던 그였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것이 끝장난것이다.

인혁은 아버지와 류옥, 그들의 모든것을 부정해버린것이다.

(용서하십시오, 아버지 그리고 분대장동지… 전… 후회하지 않을겁니다. …)

창밖에서는 어느때가부터 봄비가 내리고있었다. 집무에 여념이 없으시던 수령님께서서는 전화종소리에 일손을 멈추시였다.

새벽 4시였다.

그이께서는 캄캄한 창문밖을 바라보시며 송수화기를 드시였다.

《아, 국장동무, 어떻게 되였습니까?》

《정진하선생의 행방을 알아보았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어제 아들에게 편지 한장을 써놓고 나갔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찾고 있는중입니다.…”》

《…》

송수화기를 내려놓는 손이 왜서인지 떨리시였다.

정진하교수의 깨끗한 망심을 매장해버리고 행방마저도 알지 못하는 무책임한 그 인간들에 대한 분노로 심장이 아파나시였다.

우산도 없이 정원길을 걸으시는 그이의 어깨우로 나무잎사귀들에 한껏 고여있던 비방울들이 소리없이 떨어져내렸다.

그이의 발걸음이 정원의 한끝에서 멎었다.

마음을 항상 아프게 하던 그 살구나무앞이였다.

《삽을 가져오오.》

수령님께서서는 비에 젖어 얼굴이 거뭇게 질린 부판에게 나직이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봄비에 온몸을 다 적시시며 물도랑을 째주고 흙을 복돋아주시였다.

나무도 인간도 가꾸주기탓이 아닐가. 버리면 죽고 정을 기울이면 사는것이 세상만물의 법칙일진대… 말해보라, 너는 정말 어느만큼의 정과 사랑이 있으면 다시 생명을 찾을것인가. 너의 아픔 내가 다 가지면 일어설수 있을가? 네가 아픔의 상처를 가지고 다시 일어설수만 있다면 나는 이런 밤을 백밤, 천밤이라도 웃으며 쉼수 있다.…”

그이께서는 말 못하는 나무에게 심중의 피로움을 토로하고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끼시며 비에 젖은 나무를 쓰다듬으시였다.

정진하교수… 그는 지금 어디에서 이 찬비를 맞고있을것인가? 다시는 평양으로 돌아올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 마지막으로 꼭 가보고싶은 곳이 있어 집을 나갔다면? 그곳은 어디일까? 혹시?…

《부판동무, 전에 내가 말겨두었던게 있지? 그걸 좀 가져다주오.》

포장한 네모난 함 하나를 받아드신 그이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정문쪽으로 나가시였다.

《운전사동무가 지금 차바퀴를 바꿔끼우는중입니다. 수령님, 조금만 눈을 붙이고 가시면 안되겠습니까?》

부판의 안타까움에 젖은 목소리가 그냥 뒤를 따라왔지만 그이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였다.

삼일이 멀다하게 닳아버린 차바퀴를 바꿔끼우는 운전사의 거친 목소리가 앞쪽에서 들려왔다. 그에

게 미안한 생각이 갈마드셨다. 하지만 가야 할 길이다.

날밤기 전이 제일 어둡다는 자연의 법칙을 증명이라도 하듯 비내리는 도시는 어둠에 묻혀 한치 앞도 가려보기 어려웠다.

그이께서 타신 승용차는 어둠을 한치두치 헤가르며 달리기 시작했다.

캄캄한 차창밖을 바라보시는 수령님의 눈앞에는 구불구불 뻗어간 한 인간의 피젓은 운명길이 생생히 떠오르시였다.

1930년대 중엽, 그때는 조선민족말살책동에 피눈이 되어버린 일제가 민족정신의 학문인 역사학에까지 손을 뻗친 뒤였다.

무엇때문에 그는 경성제국대학의 하많은 학과중에서 꼭 조선력사를 전공했는가.

고작 5~6세기부터 시작된 일본의 력사와 문화가 5천년의 력사를 가진 조선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의 뿌리였다는 어처구니없는 역설이 공공연히 학계에 나돌던 1930년대였다.

몇푼의 돈에 팔리웠는지 아니면 력사가 발은 자기 민족의 련등감을 외곡으로 메꾸려는 파잉된 《애국심》인지 알수 없는 사이비력사학자무리가 나타나 일본에 의해 조선이라는 나라의 력사가 시작되였고 조선은 일본의 속국이라는 력사교과서까지 찍어내고있었다.

민족적자존심과 애국심에 불타는 미래의 조선력사학자는 눈을 편히 뜨고 자기 조국의 력사가 짓밟히는것을 그저 지켜볼수 없었다.

경성제국대학을 졸업한 그때부터 고고학에로의 그의 방랑길이 시작되였다.

일본의 력사와곡책동의 진실을 가깝히고 조선민족이 섬나라 야마도족보다 문명하고 슬기로운 민족임을 증명하는 길은 5천년전 이 땅우에 섰던 첫 노예소유자국가 고조선의 실재적존재를 증명하는 길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10여년… 안온한 가정과 아름다운 안해, 귀여운 아들을 뒤에 두고 동에서 서로, 서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그가 걸은 길은 얼마이고 끼니를 번치고 쪽잠에 들었던 밤길은 얼마이며 그 길에서 맞은 비와 눈은 또 얼마였던가?

《참대》라는 별명 그대로 단 한번도 누구에게 머리를 숙인적도 없고 잠자리틀 구걸한적도 없는 키크나 병약한 사나이의 그 고행에 찬 길을 과연 누가 알고나 있었던가.

드디어 그가 할수 있는것 고증한 자료들로 《고대조선사》라는 력사책의 집필을 끝냈을 때 일본말을 《국어》로 상용하도록 한 일제의 책동에 반기를 든 조선어학회사건이 터졌고 평시에 정진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걸음걸음 감시해오던 일제는 런루죄에 걸어 그를 구속하였다.

《이건 거짓말이다!》

책을 펼쳐보던 형사놈의 악에 받친 고탈소리에 력사학자는 쓰겁게 머리를 돌려버렸다.

《이건 력사다. 력사는 너희들이 외곡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력사는 불에 태울수도 없고 먹으로 지울수도 없으며 칼날로 찢을수도 없다!》

분노를 가까스로 억누르는 그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나직했다.

《그렇다?》

문득 형사놈의 뱀처럼 차거운 상판에 한줄기 비웃음이 지나갔다.

《그럼 네 눈으로 똑똑히 보라!》

갑자기 눈앞에서 일본도가 회오리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의 땀과 눈물에 얼룩지고 애국의 붉은 피로 쓰여진 《고대조선사》는 정진하의 눈앞에서 무자비하게 찢기우며 란탕질당하기 시작했다.

정진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으나 다른 놈의 각목에 맞아 물기 질퍽한 바닥에 쓰러졌다.

《안된다! 이놈들아—아!》

몸부림치는 정진하의 앞에서 원수들은 란탕친 책의 마지막잔해를 이글이글 타는 난로에 던져버렸다.

《자, 이것이 내가 말하는 그 력사다!》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한 아들이 력사만이라도 지켜보고저 바쳐온 그 모든 모태김과 아픔과 고통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실신상태에 빠진 그에게 던져진 책 한권…

《이것도 〈조선사〉인데 조선력사학자선생이 좀 보시는게 어떠시오?》

놈의 이죽거림이 그를 정신차리게 했다.

《조선사》라니? 우리 조선의 력사란 말인가?

…미개하고 련등한 조선족은 문명한 일본이 한창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이행하여 봉건사회로 줄기차게 전진하고있을 때 단군이라는 신화적인 인물에 대한 전설을 만들어놓고 노예소유자사회에서 해매고있었다. 일본이 동방의 이 잡자는 미개한 민족을 흔들어깨우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언제까지 그 시대에서 해매고있었겠는가? 조선인들이 흔히 말하는 임진조국전쟁이야말로 일본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조선에 이전, 이식시키고 그 미개척지를 오늘의 조선으로 만들어준 은혜로운 전쟁이라고 말할수 있다. …

책을 와락 꾸겨든 그는 증오에 펄펄 끓는 눈으로 형사놈을 쏘아보았다.

《네놈들이 자랑하는 초기 철기시대인 〈야요이 문화〉도 우리 조선사람들이 건너가서 개척해준 문화이다, 임진조국전쟁보다 천여년전에! 이런 거짓으론 력사의 진실을 가리울수 없다!》

《이 식민지놈아! 우린 그따윈 몰라! 네놈들이 그렇게 문명하면 우리 일본의 식민지가 됐겠는가? 너희들에게 무슨 힘이 있는가, 양?》

《!…!》

정진하의 앙다문 입술에서 붉은 피가 턱으로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이발을 갈며 교아대는 악청이 그의 귀를 멍멍하게 했다.

《자, 이젠 알았는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조선은 이젠 없다! 없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작구 약하구 련등한 너의 조선은 영원히 우리 대일본제국의 속국이 되여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의 숙명이다!》

《아니다!》

자리에서 벌떡 뛰쳐일어난 정진하는 노성을 지르며 손에 잡히는대로 의자를 들어 형사놈의 머리를 찼다.

뒤이어 비발처럼 쏟아지는 못매질에 정신을 잃고말았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것은 온통 피칠갑을 한 형사놈이 사정없이 날뛰며 각목을 휘두르는 모습이였다.

그것은 그대로 야수—일체의 피절은 상판이였다.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조선민족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저 한생토록 피를 태우고 모든것을 바쳐온 한 학자의 파란많은 생을 더듬어보시는 그이의 마음은 자꾸만 아파오시였다.

조선민족의 정신과 전통인 력사를 찾아 한생을 깡그리 바쳤건만 그에게 남은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일체의 탄압에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안해는 사망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방랑길에 올랐다. 15년만에야 겨우 찾은 그 아들과 한달도 못살고 그는 또다시 아들결에서 떠나가게 되였다.

버림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는 것이 혁명일진대 정진하의 운명만은 왜 안아주지 못한단 말인가? 정의와 불의가 판가리를 하던 그 준엄한 시각에 사선을 헤치고 정의의 길을 찾아온 그와 같은 사람도 품어주지 못한다면 우리 혁명가들의 심장이 어떻게 민족을 위해, 매 민족성원들의 운명문제를 위해 뜨겁고 열렬하게 뿔수 있단 말인가?…

그이께서 대성산유원지건설장의 대성산성 남문의 유적역에서 정진하를 찾아내셨을 때는 해가 떠오르는 련명전야였다.

비가 맺은 하늘가에 서서히 비껴오는 장중한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서신 수령님을 알아봐온 정진하는 자기의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굳어졌다.

믿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가슴을 치며 모대겨도 그의 진정을 알아주는이 없었고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고고학을 배우기를 거부했다. 실쾌한 인생의 고통과 비애를 뼈저리게 체험하며 방황하던 그의 발걸음이 닿은 곳이 바로 여기가 아닌가. 그토록 지키고싶었지만 자신의 힘으로는 지켜낼수 없는 이 귀중한 력사유적들이 자기에게 몸부림치며 하소하는것 같아 쓰라린 눈물을 뿌리며 온밤 이 대성산을 헤매인 그였다. 그런데 자기같은 초로인생을 찾아서 정말 수령님께서 오셨단 말인가?!

그이의 신발에 가득히 묻은 진탕과 아직도 축축히 젖어있는 그이의 어깨를 보았을 때 무엇때문인

지 그는 왈각 목이 메어올랐다.

《수령님!》

온밤을 내리는 비에 심회를 씻어보내며 모태졌던 학자는 눈앞이 뿌옇게 흐려왔다.

수령님께서는 저리신 마음으로 눈에 뜨이게 상한 그의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애써 웃으시었다.

《선생님, 선물을 하나 드리고싶어 찾아왔습니다.》

《예?》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수령님께서 내미시는 나무함을 펼리는 손으로 받았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은은히 빛을 뿌리는 젓빛나는 부드러운 흰색의 사기항로가 보였다.

정진하는 흠칫 놀라며 머리를 쳐들었다.

《수령님, 이건…》

그이께서는 조용히 웃으시었다.

어느사이 학자의 진중한 자세로 돌아간 정진하교수는 믿어지지 않는듯 오래도록 그것을 뜯어보다가 입속으로 가늘게 부르짖었다.

《이건 분명 발해자깁니다!》

《쏘련 연해주의 크라스노야르스크유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선생님, 이 자기에 대해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그이의 진지한 청에 정진하는 반사적으로 손을 내저었으나 얼굴은 흥분으로 붉어졌다. 그는 가볍게 몸을 떨며 입을 열었다.

《이 발해자기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 자기의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훌륭히 창조하고 발전시킨 동방의 강성한 나라 발해가 고구려도자공예의 우수한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발전시킨것으로서 그 모양의 우아함과 실용적가치로 하여 내외에 널리 알려진 우리 민족의 귀중한 유산입니다. 발해에는 여러가지 색깔과 모양의 자기들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제일 이쁜것이 바로 이 젓빛나는 흰 사기자기입니다. 고려에서 유명한 비취색청자기가 나오게 된것도 다 발해의 사기제작술을 계승받고 그것을 토대로 삼았기때문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발해자기는 당시 이웃나라들에도 대대적으로 수출되어 각이한 계층들의 생활에 널리 리용되었는데 〈새털과 같이 가볍다〉는 절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새털과 같이 가볍단 말이지요?》

사기항로를 드시고 무게를 가늠해보시던 수령님께서는 만족하게 환히 웃으시며 수행원들을 돌아보시었다.

《멋있습니다. 이 유물의 가치는 우리 정진하선생이 제일 잘 알것 같아서 왔는데 역시 틀림없습니다!》

순간 고민과 피로움과 고통에 시달려 수업이 덩수룩해지고 초체해진 로년의 력사학자는 헉 하고 흐느끼며 굳어졌다. 눈물이 썩 고여들었다. 버림을 받았던 교아가 울며 하소연할 아버지를 찾은듯 마음속 깊은 곳에 고여있던 설움이 저도 모르게 울컥 치밀어오른것이다. 그는 입술을 짹 깨물었지만 어

느사이 자기가 울고있다는것을 알았다.

(이 유물의 가치는 우리 정진하선생이 제일 잘 알것 같아서… 정말,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그렇다, 정말 그렇다!)

따뜻한 눈물이 아팠던, 피흘렸던 마음의 상처들을 따스히 씻어내리며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찢기고 터지고 열었던 그의 마음에 사랑과 정의 미소를 보내며 소생의 봄이 찾아온것이다.

마음껏 울수 있는것도 행복이라고 누군가 말했지. 여태껏 나에게는 이런 행복조차도 없었어. 너무나 많은 외로움과 고통을 겪어서 나는 줍이 없는 참대처럼 메마른 인간이 돼버리고말았어. 그런데 오늘은 왜 이렇게 울고싶을까?

그는 수령님의 따뜻한 손길이 자기 옷에 붙어있는 검불을 뜯어내는것을 꿈속에서처럼 느꼈다.

《선생님, 대성산유원지건설을 반대한 선생님의 마음을 전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곳을 그저 유흥이나 즐기는 유원지가 아니라 근로자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거점으로 꾸리자는것입니다. 이미 발굴된 력사유적유물들은 잘 보존하면서 앞으로 여기에 있는 력사유적들을 다 발굴하고 원상대로 복구하여 우리 민족이 이룩한 우수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줄수 있게 한다면 대성산은 근로자들의 좋은 문화휴식터로 될뿐아니라 인민들을 민족적공지와 애국주의정신으로 교양하는 훌륭한 장소로 될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민들이 여기 유원지에 한번 왔다가기만 해도 삼천리 온 강산을 돌아본듯, 조국의 찬란한 력사를 더듬어본듯 가슴에 느끼면서 조선민족의 한 성원이 된 긍지로 가슴을 뽐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수령님!》

수령님께서는 그의 팔을 다정히 끼시고 천천히 걸으시었다.

《선생님, 력사의 진정한 의미는 사장된 유적유물 그자체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심장속에 깊이 침투되어 그것이 민족적공지로, 녀으로, 열로 되어 때 민족성원들의 애국심을 최대로 분출시키고 그들이 자기 민족에 대한 공지와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창조하게 하는데 력사의 참의미가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진하는 문득 멈춰섰다.

무엇인가 새로운 충격이 자기의 뇌리를 광광 치는것을 놀랍게 의식하며 저도 모르게 그이를 우러렸다.

력사의 참의미, 력사를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하리요. 바로 이것이 아닌가?

…력사학자로서 내가 지키려는 력사, 그것은 그저 력사일뿐이었다. 하지만 위대한 애국자, 위인의 심장속에서 력사는 지나가버린 과거가 아니라 어제에 대한 오늘의 긍지로 새롭게 태어나고있었으며 그것은 벌써 기적을 창조하는 원동력으로 정진하 자신의 가슴부터 뜨겁게 달구고있는것 아닌가.

수령님께서는 밤새 내린 봄비에 한결 청신해

진 푸른 숲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정진하에게 말씀하시었다.

《선생님, 함께 건설장을 돌아봅시다. 그래야 저 도 마음을 놓을것 같습니다.》

《예?...》

어느덧 태양이 솟아오르고있었다.

거대한 불덩어리는 두터운 구름장을 뚫고 이글이글 불타오르며 온 우주와 산천초목과 대지에 열을 주고 생명을 주며 다함없이 따뜻하고 은혜로운 빛을 찬란히 뿌리고있었다.

그이의 안광에서 그 눈부신 태양이 불타는것을 정진하는 숲을 죽이고 보았다.

그것은 분명 사랑의 불, 애국의 불이었다.

이 나라 력사에 대한 그 어떤 허무도 소외도 용납하지 않으시려는, 세월의 온갖 락엽과 이끼들을 깡그리 태워버리고 진정으로 훌륭하고 참된 조선민족의 력사를 되찾으시려는 위대한 심장속에서부터 타오르는 불이었다.

태양이 높이 떠올랐다.

우리 민족의 5천년력사를 한눈에 굽어보았을 태양은 반만년의 유구한 민족사가 흘러온 평양의 하늘가에서 이 아침 어느때없이 강렬히 불타고있었다.

4

수수한 회색코트자락을 가볍게 날리시며 새벽이슬이 뽕양게 서린 승용차의 차문을 여시던 수령님께서서는 문득 손을 멈추고 돌아서시었다.

정원의 어딘가를 눈여겨보시는 그이의 존안에 따뜻한 미소가 고요히 피어올랐다.

정원의 오솔길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그이의 가슴은 알수 없는 기대로 울렁이시었다.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파아란 봄물이 오른 살구나무의 싱싱한 자태가 눈앞에 나타났다. 봄빛에 봉긋이 부풀어오른 여리고여린 새순의 그 순결하고도 청신한 록보석빛이 그이의 눈을 부시게 했다. 연록색의 자그마한 잎사귀들에 생명의 즙인양 소리없이 고여있는 티없이 깨끗한 아침이슬... 조용한 바람결에 잎사귀끝에 간신히 매달려있던 아침이슬들이 퐁퐁...퐁퐁... 떨어지자 기쁨에 넘친 생명의 음향이 쟁쟁히 들려오는듯 했다.

순간 그이께서는 가슴쿵클한 감동을 느끼시었다. 생명의 영원함, 믿음과 사랑을 배반하지 않는 무한한 생명력이 눈물나도록 기쁘고 반가우시었다. 만시름을 다 잊고 천천히, 천천히... 살구나무주변을 거니시는 그이의 옷자락으로 살구나무가 드리우는 감사의 눈물인양 맑은 이슬방울들이 소리없이 떨어졌다.

아침해가 떠오르고있었다. 또 하루의 창조와 투쟁과 헌신과 분투의 새날이 밝아오고있었다. 평범하면서도 류다른 력사의 하루가 시작된것이다.

1958년 4월 30일 오전.

조선인민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수수한 옷차림으로 조용히 대성산유원지건설장을 찾으시었다.

준엄한 전쟁과 더불어 상처도 많이 입고 시련도 많았던 인민에게 이제는 창조하고 향유하는 행복을 누리라고 그이께서 안겨주시는 인민사랑의 결정체-대성산유원지는 바야흐로 자기의 장중한 새 모습을 드러내고있었다.

천연병풍을 친듯 키돋움하며 잇달려있는 국사봉, 소문봉, 장수봉, 을지봉, 북장대, 주작봉을 비롯한 6개의 산봉우리들의 한가운데를 깎아내며 눈부시게 뻗어간 료환선도로에는 수많은 건설자들이 환희로 설레이고있었다.

기쁘시여, 너무 기쁘시여 그이께서는 새 도로앞에 서시여 오래도록 환호를 울리는 군중에게 손을 흔들어주시었다.

그이의 안광에 행복의 미소가 따뜻한 봄빛처럼 조용히 피어올랐다.

이제는 우리 인민들이 더는 불행이란 말, 고통이란 말을 모르고 이 아름다운 산천에서 행복을 한껏 누릴것이다... 바로 이러한 날들을 위해 창조로 들끓는 우리의 낮이 있고 지샬줄 모르는 우리의 밤이 있는것이다...

행복하고 꿈만 같은 시간은 너무나 빨리도 흐르고있었다.

할일은 많고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은데 시간은 언제나 적다. 이제는 돌아가셔야 할 시간이였다.

하지만 쉬이 떠나실수 없으시었다. 무엇인가 못다하신 일이 발목을 잡는듯 했다.

그이께서는 부관을 돌아보시었다.

《정진하선생이 출장지에서 돌아왔지... 과학원에 가서 선생을 모셔오오. 그리고 인혁동무도... 기다리겠소.》

《저...》

그이께서는 안타까움이 질게 어린 부관의 눈길을 외면하시듯 먼 하늘가로 시선을 향하시었다.

그냥은 못 돌아서실 자신을 느끼신것이다.

진달래며 철쭉이며 살구꽃이며 온갖 꽃이 만발한 대성산은 하나의 거대한 꽃바구니인듯 그윽한 꽃향기가 진동하고있었다. 문득 무엇인가 그이의 앞을 막아섰다. 바야흐로 꽃이 필가말가한 정향나무 한그루가 건설장 한옆에서 소담히 자라고있었는데 누구의 소행인지 하얀 차돌들이 나무둘레에 이쁘게 놓여있었다.

통통하게 말음진 정향나무를 보시는 순간 아득한 추억의 향수가 가슴을 찌르르 적셔주었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만발하던 정향꽃, 이 꽃잎이 날리는 교정길에서 나와 상월선생은 력사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동서고금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지식으로 학생들의 사랑을 받았던 상월선생, 문학이 인류를 지성으로 인도하는 등불이라면 력사는 인류를 완성으로 이끄는 횡불이라고 열렬히 말하던 선생의 목소리가 귀

가에 쟁쟁하다.

나의 일생에서 마지막으로 되었던 그 학창시절에 벌써 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역사를 사랑하기 마련이며 역사를 사랑하는 사람은 애국자가 되기 마련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

민족의 역사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다.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적유물을 발굴하고 복구하는 사업은 영원히 살아있는 역사를, 그 역사속에 빛나는 조선민족의 무궁한 영광과 긍지를 후대들에게 안겨주는 중요한 애국사업이다. 이토록 중요한 일을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학생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이께서는 문득 조용히 미소하시었다.

홍분과 긴장으로 얼굴이 붉어져 정신없이 달려오는 후리후리한 청년의 모습을 발견하신 것이다.

《최고사령관동지!...》

오직 그이 한분만을 믿고 준엄한 전화의 불기름을 헤쳐온 어제날 제대병사는 꿈결에도 뵈고싶던 그분의 앞에 서게 된 자신의 행운을 믿을수 없어 자꾸만 몸이 굳어졌다.

《용감한 대학생이 왔구만!》

자기에게 향해진 봄별처럼 따스한 그 미소앞에서 인혁은 그만 얼굴이 붉어져 머리를 떨구었다.

귀전에 수령님의 다정하고도 나직한 음성이 들려왔다.

《인혁이, 아직도 아버지를 원망하겠지?》

《예?》

머리를 쳐드는 순간 인혁은 자기를 곧바로 바라보시는 그이의 눈빛앞에 당황해졌다.

《인혁이, 어릴적에 왜 아버지와 함께 있지 못했는지 생각해본적이 있소?》

《...》

그이께서는 짐스레하게 탄 청년의 얼굴을 보시며 생각하시었다.

어떻게 하면 이 청년에게 아버지에 대한 존경을 다시 찾아줄수 있을가?

그 어떤 외세앞에서도 굴할줄 몰랐고 그 어떤 곤난앞에서도 꺾일줄 몰랐던 슬기롭고 강의한 민족정신이 전통으로 되어있는 이 땅이 량반사대부들의 음풍영월과 일본놈들의 극악한 민족말살정책으로 잠들어가고있는 것이 너무도 가슴아파 그 정신을 두드려 깨우자고 자신의 가정과 편안한 생활도 버리고 온 나라를 편담한 력사학자...

《인혁이, 왜놈들이 왜 아버지의 일을 그토록 방해하고 감옥에까지 끌어갔을가? 동무의 아버지를 무서워했기때문이 아닐가? 그렇소, 무서워했지. 왜 그런가? 자기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잘 알고있고 긍지를 가지고있는 민족은 절대로 굴복하지 않으며 절대로 남의 노예로 살려고 하지 않기때문이요. 정진하교수는 바로 이 긍지를 모두에게 안겨주고싶어했소. 나라가 해방되고 전쟁에서 이기니 이젠 이

학문이 별로 의의가 없는것인가? 정말 고고학이 편안할 때나 연구할 학문이겠는가?...》

수령님께서서는 천천히 걸으시며 사색을 이어나가시었다. 력사는 한 민족의 넓이고 열이고 전통이다. 우리의 현재도 빛나고 미래도 빛나야지만 과거도 빛나야 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사에는 망국의 치욕을 강요당한 조선봉건왕조 500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강국으로 이름높았던 고구려도 있었고 해동성국-발해도 있었으며 오늘도 세상사람들이 기억하고있는 청자기로 유명한 고려도 있었고 인류명기에 벌써 제일먼저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킨 고조선도 있었다는것, 우리 조선민족은 이처럼 재능있고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었음을 모두가 알아야 한다.

왜 이것을 알아야 하는가?

력사는 과거를 위해서만 필요한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기때문이다.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거대한 기적을 낳게 하는 위대한 시대가 바야흐로 도래하고있기때문이다...

승용차가 소리없이 미끄러져들어왔다. 차에서 내려 수령님을 향해 숨차게 걸어오던 정진하교수가 문득 서버렸다.

수령님가까이에 서있는 자기의 아들을 알아본것이다.

아버지를 알아본 인혁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소식없이 떠나가버린 아버지를 기다려 속태우던 긴긴밤들, 말없이 멀리에서 창가에 비친 아들의 모습을 바라만 보다가 돌아서던 아픈 밤, 빈집에서 홀로 새우던 그밤들과 출장지에서 밝히던 그 모든 밤들이 다 태양이 빛나는 이 눈부신 낮을 위해 존재한것인가?

수령님께서서는 아프고도 당황한 심정으로 말없이 굳어져버린 인혁의 등을 떠미시며 다정히 말씀하시었다.

《자, 어서... 아버지가 그리웠지? 인혁이... 애국자 아버지를 둔것을 한생토록 자랑하시오. 난 동무의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예?!》

정인혁은 저도 모르게 비칠거렸다. 크게 뜨고 굳어진 그의 눈에 당황하여 손을 씻는 아버지의 모습이 안겨왔다.

《수령님! 제가 무슨 애국자겠습니까? 전 그저...》

《력사학은 학문이기 전에 애국입니다. 정진하선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하고 우리 민족의 력사를 지키기 위해 한몸을 기꺼이 내댈 애국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을 애국자라고 부릅니다.》

인혁은 그이의 손이 아버지의 손을 따듯이 잡아 쥐는것을 보았다.

《!》

한생 누구에게도 속여본적 없던 아버지의 머리가

스르르 숙어지더니 소리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맑은 눈물이 후두둑, 후두둑 그이의 손등을 적시고 있었다. 순간 정인혁의 마음속에서도 무엇인가 울컥 솟구쳤다.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여보았다.

(애국자… 아버지!)

문득 빼근한 아픔이 온몸으로 퍼져갔다.

좁고 배고파 외로움에 울던 방랑길에서도, 행복에 취해 단잠들던 학원의 그 저녁에도, 원썩을 맞받아 달려오르던 불타는 고지에서도 항상 그리웠던 아버지,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너무나 많이 원망했던 아버지였다.

다는 리해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남다른 모든것, 그것이 바로 아들에 대한 사랑이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그는 이제야 깨달은것이다.

그 순간 그는 아버지와 눈을 마주쳤다. 처음으로 그는 쓸쓸하지 않은 눈빛을 보았다. 말없는 용서와 따뜻한 애정이 비친 맑고 그윽한 눈빛이었다.

인혁의 붉어진 두눈에서 끝내 한방울의 굵은 눈물이 솟구쳐올라 소리없이 흘러내렸다.

수령님께서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손을 랑손에 잡으시고 망울진 정향나무들사이로 걸어가시었다.

《한때 서유럽에서는 이른바 새로운 미의 창조를 떠들면서 인류지성이 수천년동안 쌓아올린 모든 문학적, 역사적재부들을 거부하거나 파괴하는 〈미래주의〉가 만연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ibi력사관에 드세찬 반격을 가할것입니다. 민족이 창조한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민족의 재부로 될것입니다!》

수령님께서서는 빠른 손동작으로 공기를 휩 헤가르시며 뒤를 돌아보시었다.

윤부상의 모습이 보이자 그이의 안광에서는 번개가 번쩍이는듯 했다.

《윤부상동무,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때보다 애국주의가 필요하고 민족자존이 필요한 때입니다. 사대주의는 약자들의 고질병일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에 대한 사랑이,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의 정신만이 기적을 창조할것이며 조선의 천리마는 바로 이 정신으로 더 힘차게 나래쳐오를것입니다!》

《!》

윤부상은 벼락이라도 맞은듯 우뚝 서버렸다. 준하게 생긴 얼굴이 점차 킁킁하게 질리기 시작했으나 사람들은 그의 결을 관심없이 지나치면서 오직 수령님만 우러르고있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정향나무에 손을 가져가시었다. 봄을 맞아 부풀어오르는 터실터실한 나무껍질들이 물기를 머금고 싱싱한 나무향기를 풍기고있었다.

그이께서는 지금 자신이 쏘련기자의 서면질문에 대답하고싶었던 그 모든 생각을 다 이들에게 쏟아놓고있음을 느끼시었다. 그 순간 그이께서는 정말 그 힘을 느끼시었다.

그렇다, 나에게에는 힘이 있다. 그것은 민족애로 충만된 강하고도 위대한 인민의 힘이다. 그 힘의 원천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인민이 창조한 내 민족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사랑이며 내 민족을 이루는 매 민족성원들에 대한 사랑이며 그들의 심장속에 넘치는 민족애에 대한 사랑이다…

그이의 눈앞에 문득 문득 아침 보셨던 새순돋은 정원의 그 살구나무가 떠오르시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믿음에 배반을 모르는 우리 인민! 사랑의 힘으로 기적을 창조할줄 아는 우리 인민!

그이께서는 정진하를 돌아보시었다.

《선생님, 고고학을 배워오라고 전쟁시기에 쏘련에 류학보냈던 학생들이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그들과 손잡고 마음껏 선생님의 소원을 풀어보십시오. 먼저 청동기시대 유적을 찾고 그다음엔 석기시대 유적을 찾고. 문혀버린 내 나라의 역사를 모두다 찾으시다.》

《예?! 석기시대… 유적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전세계에 공산주의가 선다고 해도 우리는 씨비리나 지중해일대가 아니라 바로 이 조선땅에서 살아야 하며 바로 그렇기때문에 조선사람으로서 우리 조선을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땅에 맞구멍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찾아서 우리 민족이 대대손손 이 땅에서 태를 묻고 살면서 자기의 독자적이고도 고유한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창조해온 슬기로운 민족이라는것,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존엄높은 민족이라는것을 온 세상이 다 알게 해주십시오!》

《!》

그이의 말씀은 벌써 부락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그 순간에 조선민족의 유구한 역사는 벌써 그이의 심장속에서 살아 거세계 맥동치고있었다.

정진하의 심장이 후두둑 뛴뛰었다. 강렬한 번개 빛이 눈앞에서 번쩍였다.

후날 역사학자는 자기의 회상록에 이렇게 썼다.

…역사학자는 과거의 한 시대를 파고들어 자기의 온 심혼을 깡그리 태워 거기에 생명과 넋을 불어넣는 사람들이다. 역사라는 그 거대하고도 아득한 시간의 바다에 비기여볼 때 한 시대에 사는 인간은 그야말로 모래알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나는 그 시각 그 거대한 역사를 한눈에 굽어보는 성인을 발견하였다.

그이는 역사의 분기점에 거연히 서시여 조선민족의 5천년 역사를 한눈에 쭉 굽어보시며 승리로 찬란했고 사대와 망국으로 얼룩지기도 했던 그 모든 기록들에 애국애족의 심혼과 넋을 쏟으시여 그 역사가 조선민족성원들의 모든 가슴에서 민족적금지라는 거세찬 기류로 뿜어나오게 하시는것이다.

반만년민족사를 더듬고 또 더듬어도 이분처럼 위대한분이 또 어데 있었던가!

이분이시야말로 정녕 하늘이 우리 민족을 위해 낸 대성인이시이다.

그렇다! 나는 이 순간 5천년민족사가 낳은 세기의 위인을 보았다! 민족의 구세주를 보았다!

나의 귀전에는 아득히 흘러간 원한의 그 세월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 이제 알았는가?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은 이제 없다! 없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작구 약하구 열등한 너의 조국은 영원히 우리 대일본제국의 속국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너희들의 숙명이다!》

어제날엔 처절한 몸부림과 피눈물로밖에 원수에게 항거하지 못한 식민지약소국의 력사학자였던 나 정진하!

나는 그날에야 온 우주를 안은듯 쿵쿵 거세게 높뛰는 심장으로 온 세상에 목청껏 웨치고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렇다. 세계여, 들으라! 조선은 이렇게 유구하고 찬란하고 슬기로운 민족이었다. 조선은 더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조선민족에게는 이렇듯 위대한 민족의 태양, 만고의 영웅, 위대한 령수가 계시지 않는가!

그래서 조선은 강하고 조선은 크고 조선은 위대하다! 나의 조선은 영원히 불멸하다!...

4월의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고있었다.

×

그로부터 한달후 정진하교수를 조장으로 하는 발굴조는 황해북도 봉산군 봉산읍에서 청동기시대 유적을 발굴해내었다.

그곳은 정인혁의 분대장이며 류옥의 오빠였던 류철이 희생된 곳이었다. 정인혁에 의해 류옥에게 전달된 류철의 그 유물은 적들의 폭격에 의해 로천에 드러난 청동단검의 잔해라는것이 밝혀졌으며 그 자료와 정진하교수, 정인혁, 류옥을 비롯한 력사학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신흥동유적》이라고 부르는 조선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세상에 알려졌다.

이날 밤 인혁은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분대장동지, 전... 우리가 모든것을 다 희생하며 원수들과 싸운것은 삶의 보금자리인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폐허만 남은 조국이 바라던것은 하루빨리 재더미를 털고 일어서는 것이라고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분대장동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숨쉬는 내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조선민족정신을 지키기 위해 피를 뿌리며 싸웠던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고 긍지높은 우리 민족의 력사는 이제 더는 묻히지 않을겁니다. 저 눈부신 태양의 빛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날것입니다....)

인혁은 대견한 미소를 짓고 자기를 바라보는 류철의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듯 하여 망막이 흐려들었다.

...

《...우리 조국력사에 기적의 해로 기록된 1958년,

철과 기계가 공업의 왕으로 군림하고 단꺼번에 1천여개의 지방산업공장들이 후후죽순마냥 솟아났으며 37만 7천여정보의 논과 밭에 대한 관개공사를 진행하고 수많은 중소형발전소들이 심심산골 마을에 까지 전기를 보내고 동방에서 처음으로 전반적중등의 무교육제가 실시되고 우리 나라에서 첫 굴착기가 태어나고 첫 트랙트르가 태어나고 첫 화물자동차를 탄생시킨 이해의 기적은 바로 이 봄날에서부터 시작된것이다.

조선의 고고학도 자기의 찬란한 봄을 맞이했다.

제1차 5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끝내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발전된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전변된 우리 조국이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진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1차 7개년계획의 장엄한 진군길에 오른 때 라선시에서는 구석기시대 유적(굴포리 서포항유적)이 발굴되었다.

력사는 애국으로 빛나는 후손들의 눈빛앞에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서서히 그리고 선명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대동강류역의 상원군 흑우리에서는 구석기시대 전기 원인들이 살던 검은모루유적이 드러났다. 대동강류역인 평양시 력포구역의 대동유적과 덕천시 승리산동굴유적에서는 〈력포사람〉, 〈덕천사람〉으로 불리우는 고인의 화석이 발견되었고 만달리동굴유적에서는 〈만달사람〉으로 불리우는 신인의 화석들이 발견되었다.

이 모든 유적과 유물들은 우리 조선민족이 구석기시대 전기, 중기, 후기의 원인, 고인, 신인 등 인류진화의 순차적단계를 거쳐오면서 태고부터 대동강류역에 태를 묻고 살았다는것, 농경문화를 위주로 하는 신석기시대 문화와 청동기시대 문화를 창조하며 살아온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으로서 대동강류역이 인류와 조선사람의 발원지, 고대문명의 발상지이며 고대문화의 중심지, 조선민족의 성지임을 온 세상에 명백히 증명시켜주었다.

세계력사학계에서는 대동강문화를 창조한 조선이 야말로 인류발상지로서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력사국이라는 찬탄의 목소리들이 높아갔다.

이 나라 사람들은 오늘도 그러하고 래일도 그러하듯 어제 역시 그 누구보다 슬기롭고 그 누구보다 강하고 훌륭한 자기의 모습을 이 아름답고 푸른 행성에 또렷이 새겨넣었던것이다....

파학원 력사연구소 박사 정인혁교수는 강의안을 덮고 창문가로 나가갔다. 한시간후에 그는 **김일성**종합대학에 나가야 한다.

이번에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입학한 외국류학생들에게 조선력사에 대한 개괄강의를 해달라는 초빙을 받은것이다.

빠근한 긍지와 사무치는 그리움이 백발의 로교수를 흥분시켰다. 태양이 빛나는 룡남산의 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교수의 눈시울이 조용히 떨리고있었다....